

지역 안테나

농번기 주말보육제 운영

충남, 4~6월 9~10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육(保育)시설 종사자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토록 해 편입처럼 하루 중일 어린이를 돌보는 '농번기 주말 보육제'가 운영된다. 충남도는 4~6월과 9~10월 등 연간 2차례에 걸쳐 5개월동안 주말 보육제를 운영키로 했다. 도는 우선 시·군별로 1곳씩 선정,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읍·면지역의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휴일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내 농촌 보육시설은 모두 348개로 모두 1만1445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任度赫기자

생활가구 전시·염가판매

충북임협, 이달말까지

“각종 생활가구를 저가래로 값싸게 구입하세요.”

임업협동조합 충북도지회가 청주지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흥덕구 사창동 벚산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생활가구 전시·판매 행사를 갖는

도심서 漢學가르치는 30代 청학동 선생님

대전 동구 자양서당
훈장 김정곤씨

“시월(詩曰) 부혜생아(父兮生我) 모혜국아(母兮鞠我)…”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님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

대전시 동구 자양동 ‘자양서당’. 평일 오후만 되면 언제나 서동(書童)들의 책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낭랑하게 들려오는 곳이다. 이곳 훈장(訓長)은 김정곤(金景坤·37)씨. 경남 하동의 지리산 청학동에 서 태어나 신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어려서부터 한학(漢學)만 배운 사람이다.

현재 수강생은 모두 30여명. 오초동학생이 대부분이나 간혹 중·고생, 대학생, 일반인도 있다. 배우는 것은 천자문(千字文), 사자소학(四字小學), 추구(推句), 명심보감(明心寶鑑),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한달 수강료는 4~5만원. 자연히 생활은 빠듯하다. 그러나 ‘신식여성’인 부인 이정진(李廷進·34)씨는 “선비 아내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족(自足)할 줄 알아야 한다”며 조용히 웃고 만다.

“실용주의적 학교 교육과 달리 한학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수강생 30명에게

천자문·명심보감등 지도

공부하면서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서당을 열었습니다.”

김씨가 대전에 온 것은 지난 90년 가을. 전남 구례군 문척면 ‘초동서사(草洞書舍)’에서 5년여 그를 가르쳤던 스승 안병탁(安秉柝)씨로부터 “많은 이들이 한학을 쉽게 접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다른 문학생들과 함께 ‘하산(下山)’했다. 대전에



◇지리산 청학동 출신인 김정곤<가운데>씨가 상투에 유건(儒巾), 한복 차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任度赫기자

◇대전시내 초동서사 출신 서당

서당이름	훈장	위치	전화번호(042)
자양서당	김경곤(金景坤·37)	동구 자양동	672-2692
충효학원	이학규(李學圭·36)	서구 가수원동	541-5883
청학서당	김원규(金元圭·37)	서구 탄방동	485-4070
명덕서당	이석수(李錫洙·35)	동구 용운동	272-0793
청학서당	김성곤(金鍾坤·33)	서구 만년동	489-0591

재곤(洪載坤·50)씨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김씨의 꿈은 동문수학한 대전시내 동료들<표>과 함께 번듯한 서당을 차려 한학을 부흥시키는 것. 그래서 이들 5명

은 매달 한차례씩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초동서사 대선배인 전주대 박완식(朴完植)교수에 가서 불철주야(不徹晝夜) 학문을 닦고 있다.

/任度赫기자 dhim@chosun.com

리빙 포인트

조개 속 흙-모래 빨려면



국을 끓일 때 조개 속 흙이나 모래를 빼려면 요리하기 한 두시간 전에 소금간을 한 물에 씻거나 칼같은 쇠붙이를 함께 담가둔다.

충북대 교내서 1회용컵 사용금지

스테인리스컵 1만개 보급
대신 자판기 가격은 내려

충북대는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해 교내 자동판매기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충청관광객 찾아오는

성인연극 ‘누들누드’

성인 연극 ‘누들누드’가 충청지역 관객들을 찾아온다.

공연기획사 파이온



대학측은 이를 위해 등산용 컵 모양의 스테인리스 컵 1만개를 제작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개인용으로 1개씩 나눠주고, 오는 19일부터 종이컵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자판기 주변에 정수기를 설치해 컵을 깨끗이 씻어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 방문객이 많은 학생회관과 식당 등에서는 당분간 개인 컵과 1회용 컵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가격도 차별화해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자판기 커피와 음료수 값을 현재의 15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고, 1회용 종이컵을 쓰면 200원을 받기로 했다.

/劉奎鍾기자 tjyuh@chosun.com